

# “흠어진 여성 목회자들을 찾자”

##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3회기 이취임 예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3회기 이취임 예배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할렘루야뉴욕교회(이미선/이광희 목사)에서 열렸다. 3회기에도 회장으로 취임한 김금옥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들이 진흥탕을 걸으며 목회를 해왔다면, 이제 후배 여성 목회자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3회기는 “흠어진 여성 목회자들을 찾자”라는 표어를 걸고 임원 및 분과위원, 지역회장인 협동총무 등을 발표했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금옥 △부회장 이정자 △총무 이미선 △서기 전인숙 △부회 김희순(이상 목사).

분과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기도분과 오명희(뉴저지 박현숙) △홍보분과 장만자(뉴저지 김신영) △목회분과 장경혜 △교육분과 권금주 △상담분과 배미순 △선외분과 박영주 △선교분과 양승인 △음악분과 김연숙 △사회분과 조상숙 △복지분과 박현서(이상 목사). 지역회장인 협동총무는 다음과 같다. △뉴욕 신인화 △뉴저지 이은혜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3회기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로스엔젤레스장로교회 청년부 2011 비전트립

### 기금모금 위한 독도티셔츠 및 독도스티커 판매

로스엔젤레스장로교회(담임 황규영 목사) 청년부에서는 2011년 여름 비전트립을 준비하고 있다. 유학생들과 소수의 2세대들이 함께 공존하는 본 교회 청년부(담당 송상현 목사)는 오는 8월21일부터 27일까지 하와이 지역을 방문해 한인 이민 역사를 배우고 하와이 지역교회

△매릴랜드 최현림 △펜실바니아 양승인 △스캐너티켓 조상숙 △조지아 정사라 △시애틀 전명자 △아리조나 손성숙(이상 목사).

한편 1부 예배는 인도 이미선 목사, 대표기도 신인화 목사, 성경봉독 이정자 목사, 말씀 송성자 목사(시카고 순복음사랑교회 담임), 봉헌기도 전희수 목사, 인사 김금옥 목사, 신임원 임명장 수여 및 지역회장 스톨 증정, 축사 김원희 뉴욕교회 회장 김용의 뉴욕목사회 회장, 광고 장경혜 목사, 축도 이종명 뉴욕교회 부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 협의회는 앞으로 격월로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임원 및 분과위원 모임을 격월로 갖기로 결정했다. (유원정 기자)



NOAH 제 15회 캠프 모습

## 자녀 신앙과 인격 성장 돕는다

### NOAH 제15회 수양회, 목회자/선교사 98명 참석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NoAH(Network of Anointed Households, YWAM 코너스톤 주최, 대표 김종원 목사)의 제 15회 수양회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뉴저지 크리스천아카데미(원장 신정하 장모)에서 열렸다.

미국 전역에서 98명의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들과 47명의 간사 그리고 98명의 부모들이 참석해 성향을 이뤘다. 올해는 “Just Be It(나는 나)”라는 주제와 “Being a child of God”이란 테마로 아침 경건의 시간(Q.T)과 뜨거운 찬양, 강연 및 소그룹 성경

공부 그리고 영화 관람, 필드 트립, 각종 그룹 활동 그리고 목회자 및 선교사 부모님과의 만남의 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수양회에 1박2일 코스로 참석한 90여 명의 목회자 및 선교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특별 강연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마지막 행사로 가진 가족파티(A Knight to Remember)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를 포용해 주며 가족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 로스엔젤레스장로교회 청년부 2011 비전트립

### 기금모금 위한 독도티셔츠 및 독도스티커 판매

로스엔젤레스장로교회(담임 황규영 목사) 청년부에서는 2011년 여름 비전트립을 준비하고 있다. 유학생들과 소수의 2세대들이 함께 공존하는 본 교회 청년부(담당 송상현 목사)는 오는 8월21일부터 27일까지 하와이 지역을 방문해 한인 이민 역사를 배우고 하와이 지역교회

와 네트워킹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번 비전트립 팀은 유학생, 1.5-2세, 직장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청년들로 이 기회를 통해 정신없이 질주하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젊은이들로 살아갈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장로교회 청년부에서는 비전트립 기금 마련을 위해 독도 티셔츠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나라 사랑을 고취시키고 독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땅임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홍보에 나섰다. 자세한 것은 웹사이트(www.dokdotshirts.com)를 참조하고 전화 (626)607-7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로스엔젤레스장로교회 청년들이 디자인한 독도홍보 티셔츠

## 뉴욕리폼스신학교 세인트미션대학교 학점교류 협정식

뉴욕리폼스신학교(NYRBS, 학장 이상열 박사, www.rbsny.org)와 세인트미션대학교(SMU, 총장 제임스 김 박사, www.saintmu.us)가 지난 25일 뉴욕에서 학점교류 협정식을 가졌다. 이로서 양 교는 △학생 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교환 △행정정보 교환 △교수 교류 등을 시행하게 됐다. 두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욕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사진은 SMU 제임스 김 총장(왼쪽)과 NYRBS 유상열 학장이 협정식 후 악수하고 있는 모습.

## 월드비전 선행회어린이합창단 서북미 순회공연

### 8월 6-18일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3개주 13교회

국내의 음악계로부터 '천상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월드비전 선행회어린이합창단이 서북미 한인사회를 찾아 사랑의 화음을 선사한다.

지난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서북미를 방문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월드비전 선행회어린이합창단은 8월 6일부터 18일까지 '가슴으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타이틀로 워싱턴 주, 오리건 주, 캘리포니아 주를 잇는 미 서부지역 투어를 펼칠 예정이다.

2011년 월드비전 선행회어린이합창단의 서북미 공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6일(토) 저녁 7시30분, 시애틀연합장로교회 △7일(주) 오후 1시, 시애틀형제교회 △7일(주) 저녁 7시, 타코마제일침례교회 △8일(월) 저녁 7시30분 New Life Baptist Church(Lacey) △9일(화) 저녁 7시30분 Our Savior's Baptist Church △10일(수) 저녁 7시 30분 포틀랜드영락교회 △12일(금) 저녁 8시 상향중앙장로교회 △13일(토) 오후7시 뉴비전교회 △14일(주) 오전11시 산호세은누리교회 △14일(주) 오후 6시30분 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Berkeley △16일(화) 저녁 7시30분 샌디에고 한빛교회 △17일(수) 저녁 7시30분 ANC은누리교회 △18일(목) 저녁 7시30분 감사교회

이번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1-866-육이오-1950이나 웹사이트, www.wvkor.org를 참조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 목회서신

### “다시 쓰는 행복론”

임지석 목사  
(나성세례교회 담임)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한 부탄은 65만 명의 인구에 국민 소득이 1200달러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8위라고 합니다. 부탄의 국왕인 왕추크는 특별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 총 행복도(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를 국정 운영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GDP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부탄은 정신적 행복지수(GNH)의 향상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국왕은 이를 위해서 60%의 국토를 숲과 푸른 산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부분에 최대로 예산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보다는 산림 자원의 보호를 우선한 결과 산림과 천연자원이 가득한 나라로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관광자원을 통해서 엄청난 물질적 부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왕이 친히 숲에 있는 통나무집에 살면서 빈부의 개념이 없어지게 만들었으며 자연과 벗 삼아 사는 백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났고 국민의 행복도 또한 세

계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부탄이 “지구상의 마지막 ‘샹그리라’(천국)”라는 명칭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행복에 대한 기준과 관점은 어떨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이러한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은 매일같이 치열한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질을 모으고 삶의 기반은 다졌다고 하지만 가족과 가정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영적 분별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한 개인이나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진정한 행복의 원리를 교훈함과 동시에 행복 지수를 높이는 궁극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h3>							<h4>기쁨과 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티리컨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9:00 금요찬양: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p> <p>Tel: (718) 358-7883, 직통: (646) 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ych@yahoo.com</p>
<h4>낙원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금요찬양: 오후 8:45</p> <p>Tel: (718) 482-7788, cell: (917) 349-5631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www.nakwonchurch.org</p>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 금요찬양: 오후 9:00</p> <p>Tel: (718) 464-2295, (718) 358-2225, Fax: (718) 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 364-9199, Fax: (718) 361-8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18) 883-1977, Fax: (718) 883-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550</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 461-2810, Fax: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 461-7835 / CP, (718) 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rivantic.com</p>	<h4>뉴욕 중부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수요저녁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p>website: nyjoongbu.org Tel: (718) 279-2757, 2758, Fax: (718) 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18) 639-3021, Fax: (718) 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 이문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0:15 4부 예배: 오전 12:00 5부 목양예배: 오후 1:30 6부 예배(은사): 오후 8:30 7부 목양예배: 저녁 7:30 8부 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p> <p>Tel: (718) 762-5256, 2525, Fax: (718) 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매월 1주, 3주) 8:00</p> <p>Tel: (201) 342-9194, Cell: Fax: (201) 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토요 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롱아일랜드성결교회</h4> <p>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gospel4us.org Tel: (516) 332-1757 / 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h4>순복음 뉴욕교회</h4> <p>담임목사: 김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영성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저녁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월 1주)</p> <p>Tel: (718) 321-7800, Fax: (718) 321-9394 110-30 31Ave., Flushing, NY 11358</p>	<h4>어린이교회</h4> <p>담임목사: 김수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 899-8309, Fax: (718) 899-8433 69-36 47th Ave., Woodside, NY 11377</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금요찬양: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p> <p>Tel: (718) 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p>	<h4>주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주일 3부예배: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20</p> <p>Tel: (718) 310-7061, 7062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p>	<h4>중부뉴저지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주일 3부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732) 310-0022(교회), Fax: (732) 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장영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p> <p>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pc.org</p>	<h4>퀸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시(1부)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2부) 수요찬양예배: 오후 1시 30분 NCF영어: 오후 5시 30분</p> <p>TEL: 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ch.com</p>	<h4>한마음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 277-1103, Cell: (917) 8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N.Y.: Tel: (718) 896-4400 Fax: (718) 89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h4>	<h4>브라질 서교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포아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 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U-3AO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00 7:45(토)기도회: 아침 7:40(제일) 유.초.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p> <p>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45(토)기도회: 아침 7:40(제일) 유.초.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p> <p>TEL&amp;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3 Chile</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 신학교 교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스페니쉬 설교)</p> <p>Tel: (595) 211-574-985, hanimkr@hanmail.net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p>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장학생 모집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할렐루야 2011 대뉴욕복음화대회 장학 사업으로 회원교회를 대상으로 교회에 등록된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1인당 5백 달러. 대상은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외국인도 가능)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장학금신청서(교협양식),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사진(1.5X1.5)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우대한다고. 신청마감은 8월 22일(월)이며 신청서는 교협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718)358-0074

구세군뉴욕한인교회 김중우 사관부부 환송예배

구세군뉴욕한인교회 담임 김중우, 한미숙 사관부부 환송예배가 7월 31일(주) 드려진다. 김 사관 부부는 미국 구세군 동군국 사관학교 교로 전근한다. 1996년 7월 동 교회 제3대 담임사관으로 부임한 후 지난 15년간 교회를 이끌어왔다. 후임 담임사관은 한국구세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상정, 구항미 사관이 임명됐다.

▲문의: (718)762-9613

백기현교수 뉴욕일원 집회

곱사등이로 55년을 살다가 부흥집회에서 등이 펴지고 간염과 눈 가까울 신경까지 치유 받은 백기현 교수(공주대 음악과) 간증집회가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일원에서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31일(주) 11시 리빙스톤교회(유상열 목사), 오후 2시 웨체스터제일교회(김 영 목사), 5시 연합집회(예사랑교회, 예은교회, 주비전교회) △8월 3일(수) 뉴욕성결교회(장석진 목사) △5일(금) 뉴욕감리교회(심석식 목사) △7일(주) 오후 1시 뉴저지 새연약교회(김종국 목사) △10일(수) 뉴욕 목양장교회(송병기 목사) △12일(금) 뉴욕 예사랑교회(손한권목사)

▲문의: (201)673-3090 뉴욕집회조정 윤창노 집사 chngroyoon@hotmail.com

뉴욕효성교회 설립기념 감사예배

뉴욕효성교회(담임 김영환 목사)가 8월 7일(주) 오후 6시 칼리지 포인트 이전(20-44 130St. #2 College Point, NY 11356) 5주년 설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914)393-1450

재즈 워십 콘서트

찬송가와 재즈가 만나는 'Hymnal Band 재즈 워십 콘서트'가 오는 31일(주) 오후 5시 뉴욕한인교회(216-50 28th Ave. Bayside NY 11360)에서 열린다. 앨범 발매 기념으로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순회콘서트를 갖고 있는 Hymnal Band는 피아노 박지용, 기타 이진희, 베이스 김윤철, 드럼 조성민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첫 앨범에는 한유아를 씨가 보컬게스트로 녹음에 참여했다.

▲문의: (718)428-9191, (917)696-4100

탈북민 돕기 Beatitudes 그룹 공연

Beatitudes 청소년 댄스 그룹의 2번째 공연이 8월 5일(금) 오후 7시 시카고 그레이스교회(담임 원종훈 목사, 4000 Capitol Dr., Wheeling IL 60090)에서 열린다. '2011 Revival 'LET FAITH' ARISE' 주제로 청소년 문화에 맞는 공연으로 복음 전달하며 탈북민 돕기 선교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문의: (847)668-5539 / hkkim333@hotmail.com

커네티컷실버선교회 개관

커네티컷실버선교회가 오는 31일(주) 오후 5시 선교회 본부에서 개관예배를 드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의료상담, 컴퓨터 교육, 생활영어 등 각종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또한 주택, 각종 보험 상담과 세미나도 개최한다.

▲문의: (203)803-3192

뉴욕교협 선관위원장 황동익 목사 사임

7월 20일... '2011 지도자 컨퍼런스' 등록 시작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는 지난 26일 선거관리위원장 황동익 목사의 사임에 따라 새 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 교협은 지난 20일 이메일을 통해 황동익 선거위원장의 사임을 각 언론에 통보했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황동익 목사께서 개인 사정으로 다른 특위로 섬기시길 원해 일단 선거위원장은

2011년 7월 20일자로 사임하시고 추후 다른 특위로 재임명할 예정"이라며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은 9월 이전에 재선임하여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회장 김원기 △총무 허윤준 △부서기 장용선 △선거관리위원장 현영갑 △법규위원장 유상열 △증경회

장 한재홍, 이병홍 △실행위원 이대연 △특별분과 이성현 △교협이사 손석완.

한편 뉴욕교협은 '2011 지도자 컨퍼런스' 등록을 받고 있다.

9월 12일(월)부터 9월 14일(수)까지 Spruce Lake Retreat에서 열리는

이 컨퍼런스 참가 자격은 목사, 사모, 장로 등 교계지도자로 강사는 박희민 목사, 김영걸 목사, 서임중 목사, 최창수 목사 등 다수이다.

등록비는 20달러이며 숙식은 무료로 제공된다. 선착순 150명에 한하며 사전 등록(웹사이트 등록 시에는 해당배너를 클릭)해야 한다. 접수는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협 웹사이트(http://nyckcg.org)를 참고하거나 총무 허윤준 목사(718-637-1470) 집행위원장 김연규 목사(917-558-7435)에게 문의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7월 월례회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회장 박기태목사)는 지난 21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7월 월례회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인화 목사(회계) 사회로 기도 이문구 목사, 설교 최일홍 목사, 봉헌기도 최승호 목사, 광고 김용해 목사(총무), 축도 장정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7월 월례회는 최일홍 목사가 초청했으며 9월 월례회는 뉴저지연합교회(최성남 목사)가 초청한다.



서울신대 카펠라합창단이 만나교회에서 열린 KCBN 후원음악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서울신대 카펠라합창단 동부지역 순회

미주기독교방송 후원을 위한 특별음악회로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 후원을 위한 특별 음악회가 지난 24일 저녁 6시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미주 순회 중인 서울신대 카펠라합창단(지휘 서은주 교수)이 출연한 음악회는 오영아 KCBN 방송팀장의 사회로 기도 박영표 목사(한국교양원 원로), 카펠라합창단 소개 및 공연, KCBN 소개 및 후원안내 문석진 목사, 현금송 문진영 소프라노, 현금 기도 박마이클 목사(운영이사), 축도 윤세웅 목사(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카펠라합창단은 바하의 칸타타 4번 Christ lag in Todes Banden, God so Loved the World, Our

King of King, Evening Song, Sing Gloria 등과 '꽃구름속에', '맘땀', '고향의 봄' 등 한국가곡, At the Name of Jesus, You Know My Heart, When We All Get to Heaven, Ye Shall Be Witnesses 등의 현대 찬양곡을 불렀다.

이날 KCBN은 특별행사로 라디오 수신기를 20달러에, 신양서적을 5달러에 판매하기도 했다.

KCBN은 1989년 뉴욕 주정부에 등록, 90년 8월 정식 개국한 이래 104.3MHZ WAXQ FM 방송의 KCBN 전용라디오로 하루 24시간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필라델피아에서 청취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퀸즈한인교회 설립42주년 기념 및 선교사 파송예배를 이규섭 목사가 인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원리 따라 행하라"

퀸즈한인교회 설립42주년 기념 및 선교사 파송예배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가 설립 42주년 기념 및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지난 24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드린 예배는 이규섭 목사 사회로

기도 주윤덕 원로장로, 말씀 전덕영 목사(보스틴장로교회 담임), 헌금특송 KCQ 솔리스트 앙상블, 교회약사 황성진 장로(당회서기)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덕영 목사는 "교회가 할 일"(마 4:23-25)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 즉 전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면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크리스천은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며 세대를 위해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흥호 선교사(과테말라) 파송식은 이규섭 목사의 기도 후 서약, 화

답, 안수기도, 악수례, 파송패 증정, 축사/조문위 목사(은누리장로교회 담임), 특별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축도 한진관 원로목사의 순서로 마쳤다.

이규섭 목사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달에 퀸즈한인교회가 세워졌다. 퀸즈한인교회 설립은 이민자들에게 평안의 쉼터와 영생의 샘을 제공하며 뉴욕 한인사회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선교사 파송이 교회를 향한 신 하나님의 기도에 부응하는 축복의 사건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호 선교사는 2002년부터 과테말라에서 단독으로 선교사역을 해오다가 이번에 퀸즈한인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됐다. 장 선교사는 과테말라에서 '생명수학교'(현지 미션스쿨)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7월 웰드미션 세미나리와 연계해 신학교도 설립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 YWCA 무료 여름문화축제

퀸즈 YWCA가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무료 여름이벤트 여름문화축제(Summer Literacy Festival)를 8월 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갖는다. 북 페어(BOOK FAIR)는 8월 1(월)부터 6일 간 진행된다.

다문화 지역사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매년 제공되는 이 문화축제에는 SPELLING BEE CONTEST(영어발음대회), TEEN JEOPARDY(청소년 장학퀴즈), SHORT STORY WRITING CONTEST(단편글 쓰기), TOBY

ANN STAVISKY 상원의원과 함께 책 읽는 시간, LIVE PUPPET SHOW(엘모 라이브 인형극), ALPHABET SOUP(알파벳 스프), 학습도서 박람회 SCHOOLASTIC BOOK FAIR가 준비된다.

이 외에 공작(Art & Craft), 풍선만들기(Balloon Art), 얼굴에 그림그리기(Facial Painting), 팝콘, 스노우 콘과 솜사탕, 그리고 다양한 선물 등이 준비돼 있다.

자세한 문의는 (718)353-4553, 담당자(Mary Cho)에게 하면 된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이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8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18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출출(표지)	3.5cm x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x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x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x 5.8cm	\$600.00	
전면 1/4	15.5cm x 5.8cm	\$350.00	
	7.7cm x 11.7cm		
	15.5 x 2.8cm	\$250.00	
전면 1/8	7.7cm x 5.8cm		
	7.7cm x 5.8cm		
출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x 7.5cm	\$200.00	

우 리 스 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시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치료의 근본은 말씀 순종해 삶 바꾸는 것

## MOM 선교회, 이계호 교수 먹거리 세미나

‘먹거리 건강박사’ 이계호 박사(중남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남가주비전교회(담임 박일병 목사)에서 지난 23일 오전 9시 ‘태초의 먹거리와 현대의 먹거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MOM선교회 남가주지부(디렉터 안기주)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이계호 박사는 “질병은 몸 안의 면역시스템이 약해질 때 생기는 것으로 이로 인해 결핵과 암 등이 발병한다”고 말하며 “암에 걸리면 수술 등으로 치료를 해야 하지만 이 병에 대해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에서 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육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증거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선교



이계호 교수가 먹거리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사가 그렇지 않은 선교사보다 많다는 것이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신 성전이다. 건강관리는 성전관리이며 우리들은 성전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음식은 마음껏 먹되 좋지 않은 음식의 경우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성 단

백질은 15%이하로 섭취하도록 해야 하며 짝퉁 씹어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 균형 있는 식사습관을 가져

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아들의 인체는 9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노화현상은 바로 인체 내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들의 공통점은 물을 적게 먹는 것이다. 물은 자신의 체중 1kg당 30ml를 섭취해야 하며 2-300ml를 식사하기 30분전 식후 2시간 후 1컵씩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단 한꺼번에 1리터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동산의 에덴은 기쁨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피조물들이 기쁘게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현대질병들에게서 해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아름다운교회에서 열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밤 콘서트

### 아름다운교회, ‘시와 찬미...’ 찬양콘서트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밤’ 세 번째 날 찬양콘서트를 22일 저녁 8시에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윤우경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박갑수 목사, 조영석 전도사, 구현화 사모, 허훈 형제, 이은수 목사 등 찬양사역자들이 나서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으며 동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출연자들이 부른 찬양CD를

추첨을 통해 이날 모인 청중들에게 경품으로 나눠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찬양콘서트는 이날 모인 전출연자들이 청중들과 함께 ‘지금 은 엘리야 때처럼’을 부른 후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번 찬양콘서트는 8일 이종용 목사, 15일 이은수 목사, 그리고 29일 윤희주 장로가 각각 출연해 은혜의 시간을 나눴다. (박준호 기자)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박형은 OMC 담임목사

### “성도들과 같이 울고 웃겠다...” 동양선교교회 제5대 박형은 담임목사 취임예배

동양선교교회는 지난 24일 오후 4시 제5대 박형은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 열린예배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구자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세훈 장로의 기도, 본교회 연합찬양대의 특별찬양으로 이어졌다.

이어 립형전 목사(나성영락교회 담임)가 ‘이 시대에 보아야 할 성전의 환상’(겔 41:1-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청빙위원장이 이영송 장로가 청빙경과보고를 했으며 임시담회장 박인호 목사가 서약과 치리권 부여 및 공포를 인도하고 박형은 목사의 취임사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지난 12월에 특별새벽기도 강사로 OMC에 왔을 때 주의 종을 기다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며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이 얼마나 불쌍한가 느끼며 ‘참으로 목자가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OMC 담임으로 올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본 교회 담임으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도님들과 같이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 핵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이민교회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며 “마지막 때 어두운 밤에 조명탄이 터지는 것처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중 목사(샌디에고 예수마음교회 담임)와 김건태 목사(전 남가주교협회장)가 권면을, 박효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장)가 축사를 했다. 또한 김승욱 목사(분당 할렐루야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카이스필립스 목사(세계전략선교), 마이클리 목사(나성영락교회 EM), 정세데만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EM), 김요셉 목사와 조은영 사모(수원원전침례교회), 바크블루어 목사(밀에어 미국장로교회), 하용조 목사(온누리교회),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 등의 축사가 영상 양, 길 잃은 양이 얼마나 불쌍한가 느끼며 ‘참으로 목자가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OMC 담임으로 올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본 교회 담임으로 오게 됐다”고 밝혔다.

제5대 담임인 박형은 목사는 지난 6월 열린 공동총회에서 87.02%의 지지율로 청빙이 결정됐으며 이날 취임예배를 시작으로 본 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박준호 기자)

### 본사 방문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감 문경환 목사

뉴욕소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목사) 학감으로 시무하고 있는 문경환 목사가 한국총신대학교 동기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LA 방문 중 25일 본지를 내방했다.

문 목사는 “동기 7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동부에서는 자신뿐이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다. 졸업 후 처음 만나는 동기도 있어 만남이 기대 된다”고 말하며 오랜 벗들과의 우정을 표했다.

문 목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 관해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장로교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해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



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라고 귀뜸하며 “목회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폐가 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서고 기도해야 한다 바른 신학의 정립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목사는 넘치는교회(담임 김충한 목사)와 리더교회(김요셉 목사)에서 말씀을 전한 뒤 뉴욕으로 돌아갔다. (이성자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west

### 사우스베이 사랑의교회 가정세미나

사우스베이 사랑의교회(담임 고희동 목사)는 ‘신세대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로 가정세미나를 31일(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강사는 변명태 교수(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신학대학원 아시아안프로그래 디렉터)가 맡는다. ▲문의: (714)615-7622

### 코너스톤교회 윤희주 장로 찬양전도집회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는 윤희주 장로 초청 찬양전도집회를 31일(주) 저녁 6시에 개최한다. ▲문의: (310)530-4040

### 청운교회 제 4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 제 4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모집이 진행중이다. 일반 장학금과 목회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대학생 \$1000, 고등학생 \$500불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마감은 8월10일(이날 소인까지만 유효)이며 제출 서류는 우편접수(4465 Melrose ave, LA CA 90029)나 이메일(gvc.chohlarship@gmail.com)로 보내면 된다.

### 예수 사랑으로 상처 치유해야 LA사랑의교회 정태기 목사초청 여름성령축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정태기 목사(크리스천치유목회연구원장) 초청 2011 여름성령축제를 ‘용서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기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상처의 뿌리찾기’(눅 5:17-26)라는 제목으로 정태기 목사가 설교를 했다.



여름성령축제에서 설교하고 있는 정태기 목사

정 목사는 마음의 상처와 분노 등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 가정의 인간관계에 금이 간 사례들을 들면서 그것이 해결을 통해 화합이 되기도 하고 또한 예수를 만나게 된 경우를 설교를 통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목사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그 질서를 거스르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질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미움과 분노”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또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현상만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 원인까지 바라보신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안수를 통해 병을 치유

하시기도 했다. 때로는 병의 원인이 죄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통해 병을 치유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상처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게 된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고 바울선생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다. 이렇듯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첫날 저녁집회는 ‘놀라운 만남’(눅 15:11-24), 둘째 날 새벽집회는 ‘영적체험을 통한 삶의 변화’(요 4:28-30), 주일 1부 ‘나는 왜 여기 있는가?’(창 15:7), 2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고후 5:17), 3부 ‘내영이 돌아갈 곳’(행 7:54-60)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http://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 (K.C.C.A)**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금번 미주 한인 기독교 총 연합회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진 명단**

- 대표회장 : 송정명 목사 (서부)
- 상임회장 : 전영현 목사 (동부)
- 수석공동회장 : 황의춘 목사 (동부)
- 공동회장 : 민중기 목사 (서부)
- 공동회장 : 김동욱 목사 (남부)
- 공동회장 : 임형태 목사 (중부)
- 사무총장 : 황경일 목사 (동부)
- 총무 : 박용덕 목사 (서부)
- 서기 : 유영일 목사 (서부)
- 부서기 : 윤사무열 목사 (동부)
- 회계 : 김원락 목사 (서부)
- 부회계 : 최문선 목사 (중부)

**분과 위원 명단**

- 교회일치화합 윤리위원회 : 김종덕 목사(동)
- 신학연구회 : 김인수 목사(서)
- 노후대책위원회 : 배현수 목사(동)
- 상호친목위원회 : 김성일 목사(서)
- 선교정책개발위원회 : 한기홍 목사(서)
- 이민교회성장연구위원회 : 오염음 목사(서)
- 사회봉사참여위원회 : 용장영 목사(서)
- 2세목회자양성위원회 : 원종훈 목사(중)
- 남북선교협력위원회 : 장석민 목사(남)
- 대외협력위원회 : 김하워드 목사(서)
- 북한교회재건위원회 : 이동학 목사(북)
- 정의사회평화인권위원회 : 김학수 목사(북)
- 조국통일위원회 : 강승호 목사(동)
- 이단대책위원회 : 이종명 목사(동)
- 전국평신도지도자연합회 : 김일 장로(북)
- 전국교회여성연합회 : 정제니퍼 권사(남)
- 전국기독교실업인연합회 : 구에드워드장로(서)
- 전국기독교문화예술위원회 : 신통식(동)

● 일시 **2011년 8월 2일 화요일**  
 저녁식사: 오후 6시 / 예배: 오후 7시

● 장소 **미주평안교회 본당 (2가와 버몬트)**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TEL (213) 381-2202 / 9231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 한국 교계 대북지원 재개

## 한기총-유·소아용 철분영양제, NCKK-식량지원

[미선라이프]한국교회가 굳게 잠긴 북한의 빗장을 풀기 위해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영양결핍 등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를 위해 유·소아용 철분영양제 1만5000병(750상자)을 보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기총은 뉴질랜드에서 대북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아동기독교운동부를 통해 북한의 황해도 등지의 애육원 30여 곳에 보낼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애육원 당 200-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며 “철분영양제로 면역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지원 사업은 8월중 시행한다

는 방침이다. 철분제는 한 상자에 20병씩 들어있으며, 철분제 한 병은 한 달 치 분량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도 지난 5월 1차 대북식량 지원에 나섰다. NCKK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300톤 미만의 밀가루에 대해서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1억원 상당의 밀가루를 보낼 예정”이라며 “현재 밀가루가 품귀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관계자가 모니터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이미 조선그리스도

교연맹에 전달했다”면서 “국내 시세로 밀가루 1톤당 60만원이기에 140-150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NCKK는 앞서 지난 5월 18일 중국 국제구호단체인 애덕기금회를 통해 밀가루 172톤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후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캐나다연합교회, 영국감리교회 등 국내외 교회와 단체로부터 1억원을 후원받았다.

무엇보다 향후 교계의 대북지원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수장들이 대북지원에 명확한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은 “남북

이 대치관계가 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이들이 정치 군사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희생되고 있다”면서 “어차피 남한이 겨 안고 가야할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 대표회장은 “남북의 평화적 공존은 배려와 장기적 안목에서 시작된다”면서 “특별히 한국교회는 북한 의 죄 없는 어린이들이 불행스런 죽음을 맞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NCKK 회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 인도적 차원이라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면서 “통독이 결국 독일교회가 보여준 기도의 힘에서 온 것처럼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에 한기총과 NCKK가 한마음이 되어 사랑실천과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계 만족할 수준 여권법 개정안 재검토”

## 외교부, 개정안 공시 후 교계와 두 차례 간담회

정부가 지난 4일 재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재)발급을 차등적(1-3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환경운동가나 선교사들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최근 NGO 단체나 교계가 반대해 왔다.

외교통상부 담당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지난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재검토안을 만들고 있다”며 “수정이나 제한범위 축소 수준에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최종 내용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다음주에 재입법 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검토안과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외교부와 교계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진행 중”이라며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그러나 현재 교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제도 자체의 폐기나 원점에서 재검토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까지 개정안을 공시한 이후 교계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 설명과 교계의 우려 등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확정된 개정안 입법 예고는 법제처와 협의해 전자 관보에 게시된다.

# “자연葬=창조섭리” 수목장 교계로 확산될 듯

## ‘장사(葬事)제도 개선방안’ 확정..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가능

지난 15일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사(葬事) 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교회도 창조섭리에 따른 자연장 확대를 받고 있다. 특히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일부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조성 가능해져 공원묘원으로 일반화된 매장 위주의 교회 장례문화에 적잖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연구원 김오현씨는 20일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앞으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자연장문화가 더욱 체계적인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

성할 때 기준 면적이 10만㎡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다. 그렇다 보니 대규모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는 교회들은 선뜻 자연장문화를 따를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장 확대가 가능해졌다. 추모시설 같은 건축물을 짓지 않는다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어 교회에서 자연장 시설을 만드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자연장은 시신을 화장해 생긴 골분을 납골당 대신 나무·꽃·잔디 아래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을 일컫는다. 기독교계에서는 특히 수목장(樹木葬) 형태의 자연장에 관심을 갖

고 있다. 수목장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대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창조섭리에 순응하는 장례 방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목장 실천 교회로는 온누리교회가 꼽힌다. 온누리교회는 2005년 교인들을 위해 강원도 문막읍에 ‘온누리 가족나무동산’을 만들었다. 온누리 가족나무동산의 수목장은 가족도 중앙에 추모목을 심고 나무 아래에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묻는 형태로 꾸려져 있다. 온누리 가족나무동산의 추모목은 두 사람을 안치할 수 있는 부모용과 6명을 모실 수 있는 가족용으로 나뉘어 있다. 고인을 위해 간단한 동반부표가 나무에 붙어 소박하게 꾸며져 있다.

안성성결교회도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성시에 약 2727㎡(2200평) 규모의 자연추모공원을 조성해 성도들을 위한 수목장 공간을 만들었다. 분

당 한신교회에는 ‘별세신앙’이라는 목회철학을 펼치고 2005년 소천한 이종표 목사의 유해가 교회 앞 소나무 아래에 안치돼 있다.

자연장은 아니지만 색다른 형태로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곳도 있다. 서울 안국동 안동교회는 지난해 초 교회 내부에 장묘 공간인 ‘추모의 벽’을 세웠다. 추모의 벽은 고인의 이름을 새긴 명패식으로 채워지고 있다. 추모의 벽에는 200개가량의 명패석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 600여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서울 소망교회는 경기도 양평 교회 수양관 앞마당에 ‘소망교회 성도의 묘’라는 비석을 세우고 비석 주변 자갈에서 화장한 골분을 뿌리도록 하고 있다. 비석과 주변에 깔아 놓은 자갈로 구성된 성도의 묘지는 1995년 2월 만들어졌다.

# 신천지 원주성전 건축...교계 반발 시위

## 원주시기독교연·범시민연대 “원주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미선라이프]원주 교계와 시민들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총회장 이만희)의 본부 건물 이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시기독교연합회(회장 이상표 목사)와 20여 시민단체가 연합한 신천지대책 원주시 범시민연대(실무총무 정함철)는 25일 성명을 내 “원주시청이 신천지에 건축 허가를 내줄 경우 교회와 시민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자칭 재림주라 부르는 사이비종교의 교주 이만희는 정상적인 교인과 젊은이를 현혹시켜 선량한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비 종교 신천지가 원주에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면 이는 지역 사회를 혼란으로 이끄는 악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신천지 건물신축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또 “당국은 신천지에 불법사항이 있는지 대한 민원들을 받아들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천지 측이 그동안 경기도 과천, 인천 일대에 본부 건물을 마련하고 본거지를 삼으려다 여의치 않자 원주 지역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며 “신천지가 원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결의대회를 갖는 등 원주 교회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 교계 및 시민연대 소속 500여명은 이날 원주시청 앞 근린공원에서 ‘신천지 건물 신축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2만 여명이 서명한 명부 시에 전달했다. 시민연대는 신천지 건물 신축 허가 여부를 지켜보

면서 향후 시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원주 교회와 선교단체는 지난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계에 따르면 신천지는 최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215의 2-19번지의 임야 2만8520㎡(8627평)를 매입하고 최근 원주시 건축과 등을 통해 신천지 본부로 추정되는 건물의 신축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 빌립교와 원주교회 김형만 협의부장은 “본부 이전은 아니고 원주 성전이 비좁아 넓은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천지가 선택한 시민을 상대로 폭언, 남치, 강금, 폭행을 자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신천지가 각종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발간한 이단 관련 자료집에 따르면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보혜사’라는 교리에 따라 예수의 성육신뿐 아니라 신성까지 부인한다. 또 회원만 출입할 수 있는 비밀집단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소개된다. 무료 성경 공부, 설문지, 교회 침투, 위장 교회,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이 대표적인 포교 방법이기도 하다. 예정 합동은 1995년 신천지 교리를 ‘일교의 신학적 신앙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예정 통합(1995년) 기성(1999년) 합신(2003년) 고신(2005년) 등 교단에서도 신천지를 이단으로 판정했다.



# 부산 호산나교회 흥민기 담임목사 취임

##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 모인 행복한 교회로...”

“마지막 시대에 호산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호산나교회 담임목사로 24일 취임한 흥민기(40·사진) 목사는 “하나님의 자존심”(욥1:6-12)이란 첫 설교를 통해 “오늘이 복날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삼계탕 식당 문을 닫는 신앙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중의 하나”라며 “지금까지 세워진(호산나교회)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성도들이 모인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최홍준(65) 원로목사의 사회로 열린 ‘흥민기 담임목사 부임 감사예배’는 부산노회 사찰장 이내원 목사의 기도, 정필도(수영로교회) 박반석(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송태근(강남교회) 오대식(높은뜻정의교회) 목사와 조진모(함동신학대학원) 교수의 축사, 안용운(온전교회) 목사의 격려사, 홍성택(흥민기 목사 부친)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최 목사는 “흥 목사는 호산나교회의 목회철학인 살아 있고 영감 있는 예배, 제자훈련과 목양장로서, 다음 세대 사역, 전도와 선교, 가정사역 등의 책임자”라며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통해 민족과 세계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종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 “이단·사이비 이렇게 분별을”

## 예장 합동·통합 자료집 배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S 집단과 관련된 자료집을 내놓고 전국 교회의 주의를 당부했다.

예장 통합은 최근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목회자료집’을 제작해 전국 8000개 교회에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S집단의 이단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이단주일 설교를 실었다. 이 책은 다음달 7일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총회 이단경계주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교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pck.or.kr-02-741-4381).

예장 합동도 지난 2월 ‘S집단의 68가지 접근 질문과 답변’이란 소책자를 제작해 전국 교회에 1만부를 보급했다. 교단은 매년 2월과 9월 첫째주일을 이단경계주일로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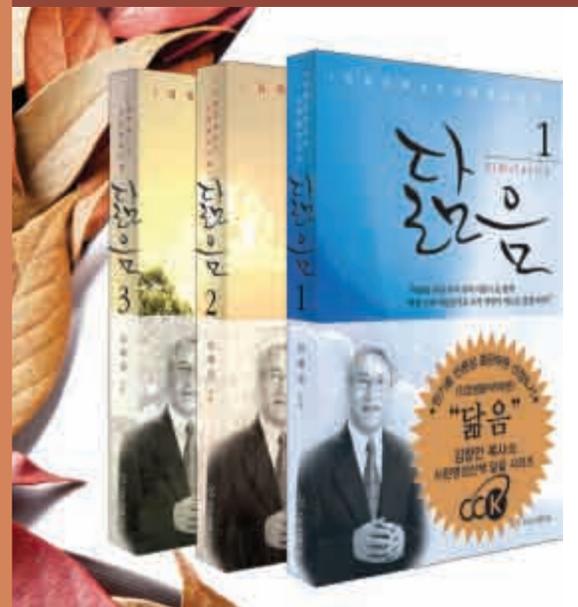
소책자에는 S집단의 정체와 포교 방법, 대처 방안 및 68가지 접근 질문, 가족이 이단에 빠졌을 때의 대처법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개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흘간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까” 등 S집단이 자주 사용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담았다(02-559-5631).

유용상 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의 서기는 “S집단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막연히 알고 있거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져 호기심과 기존 교회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시킨다”면서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들의 논리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평소 이단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경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대 교단인 합동과 통합은 1995년 기독교와 구원론, 종말론, 계시론 등에 문제가 있다며 S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 I 김항안목사의 시편영성산책 I



## ☆ 한기총 언론상 출판부문 선정도서 ☆

“김항안 목사의 시편의 영성산책 ‘다윗’은 지금까지 시편에 관해서 나온 수많은 책들과는 달리 시편에 담겨있는 영성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주에서 엄선하여 뽑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면서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졌는지를 시편의 거울로 조영해 본 책이다. 성경은 훌륭한 사람만 등장시키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도 등장한다. 성공한 사람만 등장하지 않는다. 실패한 사람도 많이 등장한다.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

당신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고통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성공을 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성이 어떤 것인지, 실패를 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영성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시편이라는 현미경으로 시편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영성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될 것이며,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양약이요,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고 바르게 이끄는 영적 지침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쁨을 나누면서 슬픔을 나누면서...

**김 항 안 목사** (철학박사, 신학박사)  
목포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 미국 트리티신학대학원, 독일 홀름트대학, 서울신학대학, 강남대학, 총회신학 아세아신학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 출강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도서출판글로리아 대표, 목회신학연구원장

저서 : 복음적인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만들기, 그리스찬사사랑교육법, 목회법법 등 80여권

# 전/강/칼/럼 (8)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 “짜임새 있는 생활(Structure of Life)”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 때문에 생활의 무질서함을 경험한다. 짜임새 없는 생활로 많은 일에 즉흥적으로 임하게 된다. 준비가 안되다 보니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다.

할 일은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종종 망설이기도 한다.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결국 허둥지둥! 스트레스는 점점 가중! 삶에 가끔 회의적인 생각도 일게 된다.

삶에 비교적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관리, 특히 시간 관리(Time Management)를 잘한다. 시간 관리와 운동이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를 가름하는 요소인 것이다.

우리를 대부분은 이민생활에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 점점 해야 하는 일들도 많아진다. 해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진 후에 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사를 돌보느라 분주하기 짝이 없다. 경제 활동 시간도 길어서, 직장인 삶의 거저인 집이 삶의 거저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다. 어떤 분들은 퇴근할 때 사장님에게 “집에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한다고 한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퇴근 후, 야구, 태권도, 음악 등 아이의 방과 후 활동과 가족의 교회 활동 등으로 바빠 항상 긴장 속에서 생활한다. 물론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미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도는 다르지만 많은 동포들이 너무 바빠 생활의 여유가 없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삶에 대한 회의가 종종 일곤 한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시간이 부족하여 허둥지둥 늘 마음이 급하다. 조금만 느슨하면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될 것 같다고 한다.

짜임새 있는 생활은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게 하고 오히려 본인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발견할 수 있게 만든다.

언젠가부터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점검하기 시작한 이후 마음의 여유를 느끼기 시작했다. 체계적인 생활 패턴이 바쁜 생활에 정신적 여유를, 그리고 활동의 효율성을 더해 줌을 깨닫는다.

우리를 대부분은 늘 벼락치기식으로 문제에 임해 왔다. 시험 준비도 그랬고 거의 만사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처리

한다. 물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우리의 자녀들이 답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고쳐야 할 것 같다. 부모가 행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배울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시간 관리에 실패, 학업에 대한 욕구를 상실한 자녀들을 볼 때가 있다. 그들은 전자 게임과 각종 유희에 빠져,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정신 질환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심지어 대학 진학 후 가중된 학업으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본다. 위의 모두가 스스로 독립하여 삶을 관리하는 능력을 잘 기르지 못한 것만 관련이 된 듯하다.

다행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짜임새 있는 생활 습관을 가르친다. 문제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줄 것인가이다. 아이들이 어리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가족 모두 한 자리에 앉아 해야 할 일들을 서로 확인하는 가족 모임도 유익할 것 같다. 바빠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수첩에 기록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말이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짜임새 있는 생활이 습관화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시간 관리는 오히려 개인의 성격 형성에 무리가 될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시간 관리 일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강박적으로 변할 수 있다. 또 완벽주의로 성격이 변해져 매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불안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원만한 성격 발달과 더불어 삶을 재미있고 활발하게 하는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는 삶의 패턴을 기르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짜임새 있는 생활은 덜 짜증스러운 삶을 위한 생활의 지혜인 것이다.



## 브라질 동북부 베르남부고 선교여행기 (4)

### “우리는 하나였다”

#### 신속자 선교사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의 영혼을 구해 주셨고 그들 자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요단에 밭을 들어 놓자 흥해는 드디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녀의 손을 번쩍 들어 주신 것이다. 이 보석 같은 투베란지아라는 사랑스런 여인을 세상에 보냈음이 아무도 찾은 이 없는 이곳 쏘리딩에 교회를 짓고 영혼을 구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영혼구원을 향한 멋진 계획이 만세전부터 있으셨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오늘날도 바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기억하신다는 말이다. 과연 우리는 하얏고 깨끗한 세마포를 얼마나 만들어가고 있는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이곳 쏘리딩 외진 쉼터(별장)에 모인 무리에게 잘 구워진 고기와 음식들이 나뉘고 이곳저곳에 자리 잡고 식사하는 무리의 모습은 마치 그 옛날 베델타 뜰에서 오병이어를 먹던 광경의 축소판 같았다.

그녀의 딸이여! 경쾌하게 기타를 치고 모두가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축제가 시작되었으니 모기도 덩달아 찬양에 흥겨워 더 더욱 열심히 먹이를 찾아 빨아 대니 영혼은 천국이요 육신은 지옥이었으나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의 입재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드렸다.

더러는 덩실덩실 몸을 날리며 춤을 추기도 했고, 산전초목도 바람에 흔들리며 천지주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그 밤은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오직 주님뿐이었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도 만족,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랴! 언제인가? 뉴욕에서 청소년수련회에서 은혜받은 청소년들이 “나는 모기가 좋아”라며 찬양하던 일이 생각났다.

드디어 쏘리딩교회 봉헌예배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들을 뒤로 하고 저녁예배를 드리기 위해 따비라교회를 향했다. 베델타교회가 건축한 따비라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7시반이었다. 날은 완전히 어두웠지만 소리 없이 내리는 비속에도 말씀을 그리워 목마른 사슴처럼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시편 121편을 내용으로 남편 김우선 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성도들은 가랑비를 맞으며 동양인 부부를 둘러싼 채 교회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은 우리의 마음을 불붙고, 그 말씀으로 만족하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이 아닌가? 그곳을 떠나면서

넬슨 목사에게도 믿음으로 종교차별을 약속했다.

주님은 우리 부부의 사역의 길목마다 기도할 때 가슴으로부터 불타오르는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때에 맞추어 주님의 멋진 방법으로 성취해 나가셨음을 확인한다. 생각해보면 베델스타 한인교회 사역이나, 책을 쓰게 하셔서 신학교를 건축하게 하신 것 또한 브라질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주의 종들을 기르게 하신 일 그리고 브라질 교회당 건축과 탁아소를 건축하여 운영케 하신 것이나 현지인 목사에게 종교차별 사주는 운까지 이모든 것들은 주의 종이 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제목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심어주셨던 꿈들을 때를 맞추어,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때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의 선지로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들이었음을 필자는 알고 있다. 하기에 무엇 하나 “나”라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다. 마음은 그곳에 두고 밭길을 재촉해서 썩 죽게 두 예지또에 도착하여 한 모퉁에 투숙하였다. 2인용 방에 60헤이스트를 지불하고 방을 찾아 올라가기 위하여 나무 계층을 올라가는데 가방을 들어 올리기에 너무 힘들고 제법 높기까지 했다. 방이라고 들어섰는데 이때부터 고통의 시작일 줄이야...

두 번 발을 때려놓던 키가 큰 남편이 전기 줄에 감긴 채 세면 벽에 박힌 무슨 나무토막에 머리를 부딪치며 “아!” 소리를 지르는 가 했더니 주저앉은 침대는 지압 마사지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라도 하느님 동글동글한 스프링에 얹은 덮개를 씌워 놓았는데 앉자마자 빠져거리며 스프링이 튀어 오른다.

이번에는 좁디좁은 방안에 걸터 다닐 길을 만들려고 60년대 텔레비전을 받쳐 놓은 받침대를 구석으로 밀어 넣으려는 남편을 도우려고 조그마한 냉장고를 옆으로 끌어당겼더니 냉장고 뚜껑이 벗겨졌다. 깜짝 놀라 억지로 밀고 손을 쉬려고 의자에 앉았더니 이번에는 의자 다리가 썰그러져 넘어지려는 찰라 용케도 중심을 잡았다. 옆으로 가게 걸음을 걸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니 무릎이 벽에 닿아서 용변기에 똑바로 앉을 수가 없어서 옆으로 앉아야 했다. 남편이 비누를 하나 얻으려고 안내 대에 앉은 사람에게 청하니 가게에 가서 사다 쓰라더라. 그가 시간을 보더니 가게 문들이 닫혔다며 계면쩍게 웃더라나?

그냥 돌아온 남편이 형편대로 살라고 했다. 수건도 하나밖에 없어서 남편과 사

이종계 반쪽씩 나누어 써야 했다. 어쩌면 그렇게도 철저히 방안의 가구들은 전쟁을 겪은 상이군인들만 모아다 놓았는지...

상이군인들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다 다쳤다지만 손님을 받은 건지 재봉은 건지...그것도 예수님 때문이라 생각하니 무한감사사지만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후텁지근한 복말의 기분 나쁜 공기와 합세한 화장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냄새야말로 실로 죽을 지경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잠을 잤는지 안 잔건지 혼미한 밤이 지난 후에는 그 분위기와 공기에도 어느 만큼 익숙해졌는지 남편과 아침예배를 드리고 나서 방을 빠져나와 현관에서 네이말 목사를 기다렸다. 이미 모기밥이 된 발과 손가락까지 가려워 연상 굵어대면서 캐나다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도 감사 못했던 아픔에 또다시 주님께 미안할 뿐이다.

네이말 목사 부부와 함께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부흥을 위한 이련저런 대화를 마친 뒤 그들의 집을 방문해 커피 한잔을 마시고 난 후 밤 11시 20분 해시퍼행 버스를 타기위해 터미널에 도착했다. 시멘트복으로 지어진 터미널 한구석에 화장실 표시가 있길래 사용하려 했더니 표 파는 직원이 너무 더러우니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는 안됐는지 아직 열리지 않은 버스 문을 특별히 열어주면서 빗물이 옷은 모습이 특별히 대우했다고 자신의 배려에 자신이 취한 듯 했다. 이곳저곳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리며 이련저런 생각이 잠겼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교를 시작한지 16년 동안 현지의 목사들로부터 밤 한 끼 먹자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썰렁해졌다. 그러나 차편은커녕 퇴약마다 그 먼 길을 걸으며 잠자리가 없어 여우의 굴, 그리고 참새 집을 부러워하셨던 주님 앞에, 시장기에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던 주님 앞에서 무슨 사치스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티끌 같은 “나”, 그런 나를 사랑하며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며 “주님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해요”라며 주의 얼굴을 구한다. 거의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야 당연하지만 시시때때로 고장난 자동차 같은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이아말로 그 크기를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어서 몸4:4-5절의 말씀에 외어본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샅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 자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시나니...”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5: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병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주일 3부예배: 오후 4: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2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육관)  
VIA DEL QUINTILI 32-36 00175 ROMA, Italy

**성실교회**  
담임목사 : 김영복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38-3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6-7

**충신교회**  
담임목사 : 박준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심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등촌한교회**  
담임목사 : 장항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성실교회**  
담임목사 : 김영복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38-3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신길교회**  
담임목사 : 이정익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해(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 주서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 FAX. (043)274-8114  
361-833 충북 청주시 서흥구 사창동 259-12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성문교회**  
담임목사 :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3:3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새벽 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Tel. (82)2-2646-3184  
서울시 강북구 북문동 520 (158-808)

**신길교회**  
담임목사 : 이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해(011)82-2-842-1968  
서울영등포구 신길 63-3, (158-051)

**창대교회**  
담임목사 : 최용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3동 448-23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용암동 936-1번지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원안이를 위한 현대예배)  
☎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 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주안교회**  
담임목사 : 나결일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4:00  
주일 7부예배: 오후 7:00  
Tel. (02)75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4-10(140-838)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동청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http://gimpo.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64번지

**삼보교회**  
담임목사 : 박창윤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 622-3 (158-053)

**승동교회**  
담임목사 :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해(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기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9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금란교회**  
담임목사 : 김정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 (131-2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오전 6:30(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수정교회**  
담임목사 : 조일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82)2-849-9191, 사해(82)2-844-1571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 3동 665-11

**왕성교회**  
담임목사 : 김자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8754~5  
군포시 경성동 570-10

**명성교회**  
담임목사 : 김삼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영일동 330-5, (134-830)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 정필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5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28-1, (1612-824)

**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수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2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6:30/9:00)  
Tel. (055)286-4710~4, Fax. (055)286-3494  
(641-370) 경남 창원시 인촌동 20-3

Table with 7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 선교지 편지



### 몽골

몽골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교 20주년을 맞은 몽골의 영적 상황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위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더욱 충만하여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몽골의 영적 상황 변화 - 몽골 전인구의 3%가 기독교화  
지난 1월에 몽골 전역에서 실시된 몽골 인구 조사에서 몽골 인구 2,750,000명중 약 3%에 해당하는 82,500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몽골 인구가 종전에 약 60,000정도로 계산했었습니다.

20년 전인 1991년 선교사 본인이 몽골에 입국당시 겨우 100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영적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몽골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매우 큰 비전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계입니다. 그동안 몽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선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속도로 성장한다면 앞으로의 10년 후에는 전 인구의 6-10%가 기독교 인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몽골이 더욱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몽골인 선교사들과 몽골에 있는 600개 이상의 교회들과 한국(100곳) 미국(12곳)과 외국에 있는(6곳)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몽골의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 급변하는 경제 속에 믿음 가지도록 기도부탁

몽골은 세계 7대 지하자원 보유국이었으나 그동안 외국의 원조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기가 안 좋았

는데도 7% 성장했습니다. 2011년에는 어우 톨고이(세계최대 구리 매장량 지역)와 타반 톨고이(점결탄, 코크스 원재료 50억톤 매장) 등에서 구리, 석탄, 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건축 붐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2013년에는 25% 성장하고, 2014년에도 25%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몽골이 지하자원 개발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이 큼니다. 부자 국가가 되기 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나라가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20년이 몽골은 아주 중요한데, 이 기간 동안 인구의 15%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3. 선교사역 소식

1)남부고비 교회들 자립사업 양 기르기 운동을 시작하려 했으나 2년 연속 가뭄과 한파로 보류되었던 선교기금이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금 직거래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금을 사서 중개상 없이 직거래로 이익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남편 성도는 금광에서 금을 파고 아내는 금



을 직거래를 했습니다. 지난 3-4개월 사업해서 순이익이 3백만 투그릭(\$2,429)을 얻어 1차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친척 여러 명도 한 팀이 되어 금을 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금덩어리 한 개를 캐서 십일조는 재정이 열악한 한 지교회에 헌금하고 친척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2) 5개 교단 선교사연합신학교에서 33명을 졸업시켜 배출하다.

6월 9일 본교 2년제 11명, 4년제 11명 그리고 으른고비 분교에서 2년제 11명 등 총 33명이 졸업했습니다. 이 중 16명이 제가 사역하는 51교회들에 소속된 학생들이었습니다. 선교사는 몽골국제대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졸업식과 모든 민족 추수교회 본당에서 있었던 16인 졸업자 환영 특별예배와 식사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학교 수업을 받던 지난 2-4년간의 인내와 노고를 칭찬하고 학교 졸업과 동시에 모든 사역지로 재배치되어 출발하는 졸업자들에게 약간의 격

려금과 단기선교팀이 두고 간 학용품들과 시계 등 1박스를 선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으른고비 고르방 테스 군 교회 바트 바야르 전도사(이전 승려)도 졸업했고, 돈고비 어유나 전도사는 전체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3) 몽골선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기념집회

1990년 몽골에 첫 성경번역과 교회를 세웠던 것을 기점으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몽골복음주의 협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90-1995년에 사역했던 초기 선교사들을 대거 초청하여 부흥집회와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기념대회는 몽골 선교초기 활동들과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갔던 사례들이 발표되어 참석했던 몽골 교계지도자들과 선교사들 388명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4) 몽골신학교 3차부지 매입에 돌입

6월 13일 모인 몽골신학교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교장과 이사진들 6명이 신학교 뒤편에 있는 작은 땅(78평)을 매입하기로 결의하고 17,500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가는 23,300불에 해당합니다. 이 땅이 매입되면 본격적으로 신학교 본관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인은 건강검진과 치료차 잠시 한국을 들러 1,500불을 모금했습니다.

5)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파송

신학교를 졸업한 볼로르마 전도사를 오브스 올람 고펜으로, 아요나는 다시 돈 드고비로, 바야르 명호를 준하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기 전도사는 단기팀을 이끌고 다르항시와 세렝게도를 돌며 전도중이며, 다른 두 팀도 수흐바타르도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2020년까지 몽골 인구의 10%(275,000명)가 복음화 되도록
- 신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된 33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사역하도록
- 신학교 부지매입(2.6백5십만 원)과 기초공사(2천만원)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되도록
- 몽골인들이 더 부유해지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으로 살도록
- 8주년을 맞은(7/24) 와신통몽골교회가 자립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황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위가 부어있음, 대장용종 4개 수술함, 대장하단 상해 있음) 황필남 선교사 드림 pnhwang@hotmail.com

## 인도 교회 역사 이래 최고 부흥기

### 총인구중 6%, 7000만명...전세계 국가별 8위

새로운 기독교의 부흥이 인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티투데이는 "인도 교회가 4000년 역사 속 최대 부흥을 맞고 있다"며 "10년 전까지 전체 인구 2%에 불과하던 인도 기독교인이 지금은 6%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세계기도정보'에 따르면 현재 인도 기독교인은 700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국가별 기독교 인구로는 8위 규모다. 인도 최대 선교단체인 OM국제선교회가 세운 교회는 10년 전 300개에서 지금은 3000개로 늘었다.

폭발적인 성장은 시바마와 같은 하층민에서 일어나고 있다. 빈곤과 문

맹의 고통을 벗지 못하던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삶이 바뀌고 있다. 인도 달릿층은 1억4000만명. 인도 선교사들은 "이들의 변화는 인도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기도정보의 편집자 제이슨 맨드릭 선교사는 "35세 이하 인구와 중간 카스트층에서도 급속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도 기독교 성장의 방향이 상층부로 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성장의 배경에는 인도 사회의 급변화도 한몫 했다. 글로벌 경제의 모판으로 부상하면서 인도 고유의 힌두교가 약화되고 카스트제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조의 균열 속

에 기독교가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하층민에겐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었다.

인도 내 미전도 종족은 2223개로 집계된다. 인도인 자국 목회자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71년까지 20개에 불과하던 인도 선교단체는 현재 200개가 넘는다. 세계기도정보는 인도인 자국 목회자가 8만명을 넘었다고 집계했다.

복음의 불길은 기독교에 가장 폐쇄적이었던 북부 지역을 향해 맹렬히 타오르고 있다. 북부는 강성 힌두교와 이슬람 영향이 많은 곳으로 3억 4000만명이 밀집해 있다.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소재 무즈와선교병원 M A 라주 대표는 "북부 지역은 인도 기독교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총체적 접근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로벌화 토종 한국 선교단체들

### "이젠 선교개혁 시대" ...국제단체로 탈바꿈

한국의 토종 선교단체가 국제단체로 탈바꿈 중이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치중해온 '교회 개혁'을 뛰어넘어 '선교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선교 개혁이란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원을 직접 선발해 파송하는 개념으로, 현지 크리스천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선교 목표가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국한했다면 선교 개혁은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소개받은 현지 크리스천이 다시 선교사가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선교 개혁의 선봉에 국내 자생단체인 GP선교회(대표 김병선)와 바울선교회(대표 이동휘), 개혁선교회(GMP·대표 김요한)가 포진해 있다. 이들 단체는 2000년대 들어 각각 해외 지부를 설립, 현지에서 직접 선교사 후보생을 길러 제3국으로 파송하고 있다. 선교사 양성

과 훈련 등을 한국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영성과 선교 열정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

GP선교회는 지난해 4월 브라질선교회를 출범시켰다. 브라질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법인과 이사회를 조직했다. 브라질선교회는 현지인들을 직접 발굴해 훈련과 파송, 후원까지 맡고 있다. 4명의 선교사를 포함 비드로 파송했으며 선교비 90%를 브라질 교회들이 담당하고 있다.

김병선 대표는 "현대 선교는 선교 개혁이라는 트렌드로 탈바꿈 중"이라며 "과거 선교가 교회개혁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 지금은 현지 교회를 선교동역화하는 선교 개혁이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GP선교회는 1968년 한국 최초의 자생 해외선교단체인 국제선교협력기구(KIM·Korea International Mission)에서 시작했다. 설립 42년 만에 해외 선교사를 현지 국가에서

파송하는 단체가 됐다.

바울선교회는 2003년 브라질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 선교사가 현지인 신학생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국제화가 시작했다. 현재 14개국에 35명의 현지인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다.

장병조 본부장은 "현지인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되면 튼튼한 선교사가 된다"며 "언어와 문화가 같은 경우 한국인 선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바울선교회는 선교 개혁을 위해 현지 교회와 협력을 늘리는 한편 장기 선교사 파송도 적극 검토 중이다.

개혁선교회는 2005년부터 국제화와 선교지 중심의 행정을 주요 사역 방향으로 정하고 국제위원회와 권역별 책임자 제도를 신설했다. 2006년 5월 영국 GMP를 창립, 현재까지 단기 선교사 6명을 파송해 사역을 완료했다. 김요한 대표는 "향후 조직을 보강해 장기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라며 "자생단체의 국제화는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졌다는 주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양신페이 소천

중국 가정교회의 원로지도자인 양신페이(楊心斐·사진)가 지난 23일 오전 노환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중화선교회가 25일 밝혔다. 언리(恩立)로 불리기도 한 그는 전도자이자 음악가로 활동했다. 1928년 10월 24일 푸젠(福建)성 사면(廈門)의 4대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다. 양신페이는 푸저우(福州)음악전문학교를 거쳐 1953년 상해음악학원을 졸업한 뒤 항저우(杭州)시문화국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정된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이듬해 고향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58년 7월 27일 '중

국가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삼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옥돼 16년간 감옥생활과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마오쩌둥의 초상화 앞에 무릎 꿇을 것을 강요받았지만 완강하게 거절해 머리카락을 모두 잘리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74년 1월 사면으로 돌아온 뒤 수많은 차세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했다. 매년 160명 이상 그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2003년 '밤의 노래(夜間的歌)'라는 제목의 간증집을 출간했다.

그는 삼자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당연시했다. "이교도의 바람이 이미 교회 안으로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위치와 신앙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결코 삼자회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조국을 매우 사랑하며 국가 법률을 위반한 적

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비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삼자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화선교회 관계자는 "사면에서 전통 가정교회와 도시교회 간 리더십 계승과 협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원활했던 이유 중 하나가 양신페이이라는 여걸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40여개의 가정교회를 세웠고 그가 인도하는 성경공부 모임에는 1000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200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세계 화인 '중국복음대회'에서 중국 대륙을 위해 대표 기도를 인도한 계외국에서 마지막 일정이었다.

# 선교 오행침 침술강의

영혼구원 및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라파선교회(Rapha Mission)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 오행침] 침술강의, 제 18기를 개최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품으신 분들과 평소 침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본 적인 침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주 최: 라파선교회 (Rapha Mission)  
 강 사: 오덕상 장로(오덕상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일 정: 8월 25일 ~ 11월 10일 (총 12회)  
 시 간: 매주 목요일 7:00pm ~ 9:40pm  
 등록비: \$250 (교재용 바인더 및 침 제공)  
 장 소: 생수의강교회  
 2865 W. 7th St. L.A., CA 90005  
 (7가 웨스트 모어랜드와 후버 사이)

라파선교회홈페이지  
[www.larapha.org](http://www.larapha.org)

\*등록은 8월 25일 개강일에 직접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당일은 30분 전에 도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오행침 침술강의를 수료하신 분은 본 선교회의 국내외 의료선교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의 (213)703-0920

##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길, 이영섭, 김만형, 김상덕, 조일규, 홍민기, 송규식, 김혜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 크리스천 가정상담

영인숙 전도사(기독교상담소 소장)



#### 목회자의 윤리적 경계(Ethical Boundary)

청소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의 감정이 섬세해서 형제들 보다 상처에도 많이 노출되고 또 치유에 대한 갈증도 깊어서 특정 자매를 조금씩 들어주면서 멘토링을 하다보니 자매가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너무 많이 의지를 해왔습니다. 목회를 통한 교제가 지속되고 자매가 성장하면서 영적 독립보다 목회자에 대한 개인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저도 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경계를 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매의 내면의 치유를 돕고자 개인적으로 더 관심을 써 준 일이 부모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었고 목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문제가 확대되면서 저의 실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권면 받을 사항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문제발생 전까지 못 느껴 예방 어려워

정신 건강(Mental Health) 및 목회를 통한 영혼 치료와 관련된 전문영역에서 윤리적인 경계를 지키는 일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은 전문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격 요건(Credential)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며 유지시키는 '전문직 역할 수행에 관한 경계(Professional boundary)'에 대해 너무 제한적인 정의를 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목회자들이 성적비행 등으로 실족하는 사례가 세상에 드러나고 교회 내적으로 목회자들의 윤리강령에 대한 위반 사례가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윤리적 경계(Professional Ethical Boundary)와 덕목(Ethical Code)에 대한 명확한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한 이슈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윤리 문제를 다루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현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으로 성도와 목회자들의 많은 기대와 필요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어서 사역현장에서 경계가 항상 분명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 성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아주 미묘한 경계(Subtle Boundary)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직자들이 경계를 위반하는 범위는 아주 미묘하고 작고 인식하기 어려운 위반에서부터 법적으로 벌을 받는 행동까지 광범위하게 있는데 성직자들이 큰 위반적 행동에만 주목하다보니 작은 미묘한 경계의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자신들이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직자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보는 자세 자체가 위험한 태도가 됩니다. 목회자들이 사역 가운데 늘 발생하는 전문사역에 대한 경계(Professional Boundary)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알게 될수록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더욱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윤리 덕목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역현장에서 어디서부터 경계 위반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위반은 한 큰 사건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사례보다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동기가 관계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목적이라는 표층에 가려서 항상 숨겨져 있게 되어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빈번한 것을 봅니다.

특히 성직자가 성적 비행과 관련된 때는 더욱 미묘하게 경계위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직자들은 이러한 관계 양상을 잘 관찰하여 위험 시그널을 조기에 느낄 수 있는 영적 분별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윤리적 경계에 대한 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사역자가 사역 목표 등에 너무 몰두되거나 목회의 동기보다 자신의 이슈(Agenda)가 더 절박하게 중요해질 때, 성도들의 필요를 듣는 것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필요할 때, 목회자로서 특정 성도가 친구처럼 친밀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특별한 멤버와 시간을 더 보내게 될 때, 특정 성도를 공적으로 허락된 장소 이외에서 더 보게 될 때, 목회를 위한 바람보다 다른 흥미가 생기거나 관계가 실패할 때 등의 위험한 상황을 들 수 있는데 위험을 예측할 때마다 이를 잘 분별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성직자들이 종종 실수를 하는 이유는 경계위반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고 가끔은 해가 없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경계에 대한 위반들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곤 합니다. 대부분 성도나 목회자들 쌍방 모두 좋게 느끼고 있는 순수한 상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의 위험을 알아차리는 일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위반은 크게 확대되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느껴지지 않아서 예방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계를 침범당한 희생자들은 종종 자신이 받은 상처를 직면하면서 이를 다루는데 감정적 저항을 느끼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신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믿으려고 하기에 문제가 확대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윤리적 경계를 위반하는 일은 사회의 큰 구조적, 언약적 신뢰를 배신하게 됨으로써 목회자와 교회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선입관을 갖게 됨으로써 다른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제공도 가능케 하여 복음의 진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이 시대에 전문직의 자격 요건(Professional Credential)에 대한 분명한 윤리적 지침처럼 목회자의 윤리강령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하여 지혜로운 분별력을 요하는 덕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연락처: (213) 381-7554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 월 찬양과 기도 (사63:7-19) 찬506장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종말시대를 지나는 성도는 두 가지를 힘써야합니다. 첫째, 찬송해야합니다(1-14). 선지자는 역사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흥쾌도와 가나안 정착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의 절대 사랑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10). 반역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그들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하십니다. 둘째, 기도해야합니다(15-19).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송하는 자는 동시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기업을 잊어주지 않았던 은 잊지 않으시는 부자관계의 언약을 근거로(16) 배은망덕하여 비참하게 된 유다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찬송과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하십시오.

#### 화 요셉의 꿈 (창37:1-11) 찬542장

요셉의 꿈은 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 꿈의 샘플입니까? 첫째, 하나님에게서 나온 꿈이기 때문입니다(6). 그가 꿈을 마음에 품고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일시적인 꿈이 아니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어주신 성령의 이상이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행 2:17). 둘째,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꿈이기 때문입니다(7-8). 열한 쟁단들이나 해와 달 열한별 꿈은 가족, 가문, 애굽을 책임지고 신정(theocracy)을 세우기 위한 딱한 그릇으로 부름 받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셋째, 남의 꿈을 해석하는 은사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10). 성령의 꿈으로 총명한 생애를 살아갑시다.

#### 수 요셉의 임마누엘 (창39:1-23) 찬456장

요셉의 고난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첫째, 인격이 변화했습니다(7-18). 형님들의 시기와 미움을 유방한 그의 참소하는 모란 인격이 깎여지게 됐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통해 그는 겸손과 건디는 인격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둘째, 사명이 구체화했습니다(9-23). 그 고난은 그를 점점 더 사명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 자체가 자기 사명을 뚜렷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습니다(2,3,23). 요셉이 모든 일이 형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경험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화하는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우리 가정은 요셉의 복을 얼마나 누리는지 살펴봅시다.

#### 목 하나님의 섭리의 손 (창41:41-57) 찬461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일하심을 보인 본문에 우리는 어떤 증거를 발견합니까? 첫째, 바로의 꿈을 사용하셨습니다(1-13). 애굽의 한 군주의 꿈은 요셉이 치리자가 돼 언약백성이 큰 민족으로 자라나는 발판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미줄같이 얽혀진 사건들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자상하심을 보아야 합니다(롬8:28). 둘째, 애굽의 흉년과 풍년을 허락하심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었습니까(32-33). 자연해택과 재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주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왕상18:1). 셋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를 보여줍니다(37-40). 바로는 흥왕하는 세상통치로 만족했지만 요셉은 하나님나라의 왕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봅시다.

#### 금 문제의 해결방법 (왕하4:1-17) 찬278장

본문을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야합니다(3). 내게 있는 오병이어, 기름 한 병 그리고 먹고 죽을 한 개의 떡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주께 드릴 때 일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수반해야 합니다(16). 상상을 초월한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일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손

을 믿고 큰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셋째, 최선의 선행을 통해 일하십시오(9).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배려는 난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자체가 공모는 아니나 그것을 통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금홍(선행)이 환난을 이김니다(약2:13).

#### 토 환난 날의 소망 (왕하6:24-7:2) 찬241장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소망을 가집니까? 첫째, 비참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26). 비참을 목도한 왕은 배웃을 입고 회개할 정도가 됐습니다. 엘리사의 혁혁한 사역만큼 위상을 섬기는 백성의 마음은 돌이키기에 너무 느렸습니다. 현실의 궁핍을 통해 주의 손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둘째,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29). 인육을 먹은 엽기적 행각은 비참자제였습니다. 도

독질할 것을 격정해 지나친 궁핍 피하기를 구한 아굴의 간구는 이런 정황을 두고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죄 못지않은 때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7:2). 왕이 신뢰하는 군대장관의 불신앙은 주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말씀제일주의의 신앙을 과수함이 급선무입니다.

#### 파산한 수정교회 가톨릭서 매입의사

미국 수정교회(담임 윌라 솔러 콜맨 목사)가 채무 지불을 위해서 예배당을 포함한 교회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가톨릭 측에서 매입 의사를 전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수정교회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오픈지카운티에 소재한 이 지역 가톨릭 교구는 교회 예배당을 포함해 수정교회가 내놓을 부동산을 모두 5천만 달러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했다. 당초에 수정교회가 제시한 4천6백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오픈지카운티 교구는 매입 후에 도 수정교회가 3년간 예배당과 전 부동

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 고도 밝혔다.

작년 10월 파산한 수정교회는 예배당과 40여개 가량의 교회 소유지를 모두 매각해 얻은 대금으로 채무를 지불하겠다는 회생 계획을 올해 5월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교인들을 위해서 본당 건물은 임대를 통해 15년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밝혔었다. 이 같은 회생 계획안은 이번 여름 내로 법원의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픈지카운티 교구는 현재 이 지역 교인 수가 약 1백만명에 이르는 반면 성당의 좌석 수가 3천석에 불과해 1억 달러를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고려했으나, 수정교회와 그 소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두 배 가량 저렴하다는 판단 하에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

려졌다.

한편 수정교회는 아직까지 오픈지카운티 교구의 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며, 언론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지 언론들은 수정교회 이사회와 채권단, 그리고 법원의 검토 이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개혁교회(RCA)에 속한 수정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설교 방송 중 하나인 '능력의 시간(Hour of Power)'이 촬영되는 장소다. 로버트 H. 솔러 목사가 1955년 자동차 극장에서 시작해,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켰으나, 2006년 그가 은퇴하며 자녀들이 리더십을 물려받은 이래로 가족 간 갈등이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이야기

비율수록  
채움받는  
교회

새크라멘토 방주선교회  
담임 박동서 목사 칼럼집

● 영혼구원, 주님 사랑, 영혼의 (1)와 (2)와 (3)와 (4)와 (5)와 (6)와 (7)와 (8)와 (9)와 (10)와 (11)와 (12)와 (13)와 (14)와 (15)와 (16)와 (17)와 (18)와 (19)와 (20)와 (21)와 (22)와 (23)와 (24)와 (25)와 (26)와 (27)와 (28)와 (29)와 (30)와 (31)와 (32)와 (33)와 (34)와 (35)와 (36)와 (37)와 (38)와 (39)와 (40)와 (41)와 (42)와 (43)와 (44)와 (45)와 (46)와 (47)와 (48)와 (49)와 (50)와 (51)와 (52)와 (53)와 (54)와 (55)와 (56)와 (57)와 (58)와 (59)와 (60)와 (61)와 (62)와 (63)와 (64)와 (65)와 (66)와 (67)와 (68)와 (69)와 (70)와 (71)와 (72)와 (73)와 (74)와 (75)와 (76)와 (77)와 (78)와 (79)와 (80)와 (81)와 (82)와 (83)와 (84)와 (85)와 (86)와 (87)와 (88)와 (89)와 (90)와 (91)와 (92)와 (93)와 (94)와 (95)와 (96)와 (97)와 (98)와 (99)와 (100)와 (101)와 (102)와 (103)와 (104)와 (105)와 (106)와 (107)와 (108)와 (109)와 (110)와 (111)와 (112)와 (113)와 (114)와 (115)와 (116)와 (117)와 (118)와 (119)와 (120)와 (121)와 (122)와 (123)와 (124)와 (125)와 (126)와 (127)와 (128)와 (129)와 (130)와 (131)와 (132)와 (133)와 (134)와 (135)와 (136)와 (137)와 (138)와 (139)와 (140)와 (141)와 (142)와 (143)와 (144)와 (145)와 (146)와 (147)와 (148)와 (149)와 (150)와 (151)와 (152)와 (153)와 (154)와 (155)와 (156)와 (157)와 (158)와 (159)와 (160)와 (161)와 (162)와 (163)와 (164)와 (165)와 (166)와 (167)와 (168)와 (169)와 (170)와 (171)와 (172)와 (173)와 (174)와 (175)와 (176)와 (177)와 (178)와 (179)와 (180)와 (181)와 (182)와 (183)와 (184)와 (185)와 (186)와 (187)와 (188)와 (189)와 (190)와 (191)와 (192)와 (193)와 (194)와 (195)와 (196)와 (197)와 (198)와 (199)와 (200)와 (201)와 (202)와 (203)와 (204)와 (205)와 (206)와 (207)와 (208)와 (209)와 (210)와 (211)와 (212)와 (213)와 (214)와 (215)와 (216)와 (217)와 (218)와 (219)와 (220)와 (221)와 (222)와 (223)와 (224)와 (225)와 (226)와 (227)와 (228)와 (229)와 (230)와 (231)와 (232)와 (233)와 (234)와 (235)와 (236)와 (237)와 (238)와 (239)와 (240)와 (241)와 (242)와 (243)와 (244)와 (245)와 (246)와 (247)와 (248)와 (249)와 (250)와 (251)와 (252)와 (253)와 (254)와 (255)와 (256)와 (257)와 (258)와 (259)와 (260)와 (261)와 (262)와 (263)와 (264)와 (265)와 (266)와 (267)와 (268)와 (269)와 (270)와 (271)와 (272)와 (273)와 (274)와 (275)와 (276)와 (277)와 (278)와 (279)와 (280)와 (281)와 (282)와 (283)와 (284)와 (285)와 (286)와 (287)와 (288)와 (289)와 (290)와 (291)와 (292)와 (293)와 (294)와 (295)와 (296)와 (297)와 (298)와 (299)와 (300)와 (301)와 (302)와 (303)와 (304)와 (305)와 (306)와 (307)와 (308)와 (309)와 (310)와 (311)와 (312)와 (313)와 (314)와 (315)와 (316)와 (317)와 (318)와 (319)와 (320)와 (321)와 (322)와 (323)와 (324)와 (325)와 (326)와 (327)와 (328)와 (329)와 (330)와 (331)와 (332)와 (333)와 (334)와 (335)와 (336)와 (337)와 (338)와 (339)와 (340)와 (341)와 (342)와 (343)와 (344)와 (345)와 (346)와 (347)와 (348)와 (349)와 (350)와 (351)와 (352)와 (353)와 (354)와 (355)와 (356)와 (357)와 (358)와 (359)와 (360)와 (361)와 (362)와 (363)와 (364)와 (365)와 (366)와 (367)와 (368)와 (369)와 (370)와 (371)와 (372)와 (373)와 (374)와 (375)와 (376)와 (377)와 (378)와 (379)와 (380)와 (381)와 (382)와 (383)와 (384)와 (385)와 (386)와 (387)와 (388)와 (389)와 (390)와 (391)와 (392)와 (393)와 (394)와 (395)와 (396)와 (397)와 (398)와 (399)와 (400)와 (401)와 (402)와 (403)와 (404)와 (405)와 (406)와 (407)와 (408)와 (409)와 (410)와 (411)와 (412)와 (413)와 (414)와 (415)와 (416)와 (417)와 (418)와 (419)와 (420)와 (421)와 (422)와 (423)와 (424)와 (425)와 (426)와 (427)와 (428)와 (429)와 (430)와 (431)와 (432)와 (433)와 (434)와 (435)와 (436)와 (437)와 (438)와 (439)와 (440)와 (441)와 (442)와 (443)와 (444)와 (445)와 (446)와 (447)와 (448)와 (449)와 (450)와 (451)와 (452)와 (453)와 (454)와 (455)와 (456)와 (457)와 (458)와 (459)와 (460)와 (461)와 (462)와 (463)와 (464)와 (465)와 (466)와 (467)와 (468)와 (469)와 (470)와 (471)와 (472)와 (473)와 (474)와 (475)와 (476)와 (477)와 (478)와 (479)와 (480)와 (481)와 (482)와 (483)와 (484)와 (485)와 (486)와 (487)와 (488)와 (489)와 (490)와 (491)와 (492)와 (493)와 (494)와 (495)와 (496)와 (497)와 (498)와 (499)와 (500)와 (501)와 (502)와 (503)와 (504)와 (505)와 (506)와 (507)와 (508)와 (509)와 (510)와 (511)와 (512)와 (513)와 (514)와 (515)와 (516)와 (517)와 (518)와 (519)와 (520)와 (521)와 (522)와 (523)와 (524)와 (525)와 (526)와 (527)와 (528)와 (529)와 (530)와 (531)와 (532)와 (533)와 (534)와 (535)와 (536)와 (537)와 (538)와 (539)와 (540)와 (541)와 (542)와 (543)와 (544)와 (545)와 (546)와 (547)와 (548)와 (549)와 (550)와 (551)와 (552)와 (553)와 (554)와 (555)와 (556)와 (557)와 (558)와 (559)와 (560)와 (561)와 (562)와 (563)와 (564)와 (565)와 (566)와 (567)와 (568)와 (569)와 (570)와 (571)와 (572)와 (573)와 (574)와 (575)와 (576)와 (577)와 (578)와 (579)와 (580)와 (581)와 (582)와 (583)와 (584)와 (585)와 (586)와 (587)와 (588)와 (589)와 (590)와 (591)와 (592)와 (593)와 (594)와 (595)와 (596)와 (597)와 (598)와 (599)와 (600)와 (601)와 (602)와 (603)와 (604)와 (605)와 (606)와 (607)와 (608)와 (609)와 (610)와 (611)와 (612)와 (613)와 (614)와 (615)와 (616)와 (617)와 (618)와 (619)와 (620)와 (621)와 (622)와 (623)와 (624)와 (625)와 (626)와 (627)와 (628)와 (629)와 (630)와 (631)와 (632)와 (633)와 (634)와 (635)와 (636)와 (637)와 (638)와 (639)와 (640)와 (641)와 (642)와 (643)와 (644)와 (645)와 (646)와 (647)와 (648)와 (649)와 (650)와 (651)와 (652)와 (653)와 (654)와 (655)와 (656)와 (657)와 (658)와 (659)와 (660)와 (661)와 (662)와 (663)와 (664)와 (665)와 (666)와 (667)와 (668)와 (669)와 (670)와 (671)와 (672)와 (673)와 (674)와 (675)와 (676)와 (677)와 (678)와 (679)와 (680)와 (681)와 (682)와 (683)와 (684)와 (685)와 (686)와 (687)와 (688)와 (689)와 (690)와 (691)와 (692)와 (693)와 (694)와 (695)와 (696)와 (697)와 (698)와 (699)와 (700)와 (701)와 (702)와 (703)와 (704)와 (705)와 (706)와 (707)와 (708)와 (709)와 (710)와 (711)와 (712)와 (713)와 (714)와 (715)와 (716)와 (717)와 (718)와 (719)와 (720)와 (721)와 (722)와 (723)와 (724)와 (725)와 (726)와 (727)와 (728)와 (729)와 (730)와 (731)와 (732)와 (733)와 (734)와 (735)와 (736)와 (737)와 (738)와 (739)와 (740)와 (741)와 (742)와 (743)와 (744)와 (745)와 (746)와 (747)와 (748)와 (749)와 (750)와 (751)와 (752)와 (753)와 (754)와 (755)와 (756)와 (757)와 (758)와 (759)와 (760)와 (761)와 (762)와 (763)와 (764)와 (765)와 (766)와 (767)와 (768)와 (769)와 (770)와 (771)와 (772)와 (773)와 (774)와 (775)와 (776)와 (777)와 (778)와 (779)와 (780)와 (781)와 (782)와 (783)와 (784)와 (785)와 (786)와 (787)와 (788)와 (789)와 (790)와 (791)와 (792)와 (793)와 (794)와 (795)와 (796)와 (797)와 (798)와 (799)와 (800)와 (801)와 (802)와 (803)와 (804)와 (805)와 (806)와 (807)와 (808)와 (809)와 (810)와 (811)와 (812)와 (813)와 (814)와 (815)와 (816)와 (817)와 (818)와 (819)와 (820)와 (821)와 (822)와 (823)와 (824)와 (825)와 (826)와 (827)와 (828)와 (829)와 (830)와 (831)와 (832)와 (833)와 (834)와 (835)와 (836)와 (837)와 (838)와 (839)와 (840)와 (841)와 (842)와 (843)와 (844)와 (845)와 (846)와 (847)와 (848)와 (849)와 (850)와 (851)와 (852)와 (853)와 (854)와 (855)와 (856)와 (857)와 (858)와 (859)와 (860)와 (861)와 (862)와 (863)와 (864)와 (865)와 (866)와 (867)와 (868)와 (869)와 (870)와 (871)와 (872)와 (873)와 (874)와 (875)와 (876)와 (877)와 (878)와 (879)와 (880)와 (881)와 (882)와 (883)와 (884)와 (885)와 (886)와 (887)와 (888)와 (889)와 (890)와 (891)와 (892)와 (893)와 (894)와 (895)와 (896)와 (897)와 (898)와 (899)와 (900)와 (901)와 (902)와 (903)와 (904)와 (905)와 (906)와 (907)와 (908)와 (909)와 (910)와 (911)와 (912)와 (913)와 (914)와 (915)와 (916)와 (917)와 (918)와 (919)와 (920)와 (921)와 (922)와 (923)와 (924)와 (925)와 (926)와 (927)와 (928)와 (929)와 (930)와 (931)와 (932)와 (933)와 (934)와 (935)와 (936)와 (937)와 (938)와 (939)와 (940)와 (941)와 (942)와 (943)와 (944)와 (945)와 (946)와 (947)와 (948)와 (949)와 (950)와 (951)와 (952)와 (953)와 (954)와 (955)와 (956)와 (957)와 (958)와 (959)와 (960)와 (961)와 (962)와 (963)와 (964)와 (965)와 (966)와 (967)와 (968)와 (969)와 (970)와 (971)와 (972)와 (973)와 (974)와 (975)와 (976)와 (977)와 (978)와 (979)와 (980)와 (981)와 (982)와 (983)와 (984)와 (985)와 (986)와 (987)와 (988)와 (989)와 (990)와 (991)와 (992)와 (993)와 (994)와 (995)와 (996)와 (997)와 (998)와 (999)와 (1000)와 (1001)와 (1002)와 (1003)와 (1004)와 (1005)와 (1006)와 (1007)와 (1008)와 (1009)와 (1010)와 (1011)와 (1012)와 (1013)와 (1014)와 (1015)와 (1016)와 (1017)와 (1018)와 (1019)와 (1020)와 (1021)와 (1022)와 (1023)와 (1024)와 (1025)와 (1026)와 (1027)와 (1028)와 (1029)와 (1030)와 (1031)와 (1032)와 (1033)와 (1034)와 (1035)와 (1036)와 (1037)와 (1038)와 (1039)와 (1040)와 (1041)와 (1042)와 (1043)와 (1044)와 (1045)와 (1046)와 (1047)와 (1048)와 (1049)와 (1050)와 (1051)와 (1052)와 (1053)와 (1054)와 (1055)와 (1056)와 (1057)와 (1058)와 (1059)와 (1060)와 (1061)와 (1062)와 (1063)와 (1064)와 (1065)와 (1066)와 (1067)와 (1068)와 (1069)와 (1070)와 (1071)와 (1072)와 (1073)와 (1074)와 (1075)와 (1076)와 (1077)와 (1078)와 (1079)와 (1080)와 (1081)와 (1082)와 (1083)와 (1084)와 (1085)와 (1086)와 (1087)와 (1088)와 (1089)와 (1090)와 (1091)와 (1092)와 (1093)와 (1094)와 (1095)와 (1096)와 (1097)와 (1098)와 (1099)와 (1100)와 (1101)와 (1102)와 (1103)와 (1104)와 (1105)와 (1106)와 (1107)와 (1108)와 (1109)와 (1110)와 (1111)와 (1112)와 (1113)와 (1114)와 (1115)와 (1116)와 (1117)와 (1118)와 (1119)와 (1120)와 (1121)와 (1122)와 (1123)와 (1124)와 (1125)와 (1126)와 (1127)와 (1128)와 (1129)와 (1130)와 (1131)와 (1132)와 (1133)와 (1134)와 (1135)와 (1136)와 (1137)와 (1138)와 (1139)와 (1140)와 (1141)와 (1142)와 (1143)와 (1144)와 (1145)와 (1146)와 (1147)와 (1148)와 (1149)와 (1150)와 (1151)와 (1152)와 (1153)와 (1154)와 (1155)와 (1156)와 (1157)와 (1158)와 (1159)와 (1160)와 (1161)와 (1162)와 (1163)와 (1164)와 (1165)와 (1166)와 (1167)와 (1168)와 (1169)와 (1170)와 (1171)와 (1172)와 (1173)와 (1174)와 (1175)와 (1176)와 (1177)와 (1178)와 (1179)와 (1180)와 (1181)와 (1182)와 (1183)와 (1184)와 (1185)와 (1186)와 (

# 2011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 “월드미션대학교, ATS 인준 받다!”

월드미션대학교는 2011년 6월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인준을 취득했다. ABHE와 TRACS에 이어 ATS의 인준까지 받음으로써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전체에 걸쳐 미 교육부 산하 인준기관의 정식 인가를 모두 받은 미 서부 최초의 한국계 기독교 대학교가 되었다.

## 새로운 꿈을 위한 시작! 월드미션대학교와 함께

### 1. 미군 군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군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 ▶ 황지용 미군대위
  - 2011년 목회학석사 졸업생
  - 현재 하와이에서 군목으로 복무
- ▶ 김명환 미군 군목 후보생
  - 현재 목회학석사 재학중
  - 독일에서 복무

### 2. 통신 과정으로 미 정규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이 과정을 통하여 학사 129명, 신학석사 17명, 목회학 석사 152명이 미 정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유아교육교사/원장 자격증 과정과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을 다수의 학생이 마쳤습니다. 현재 100여명의 재학생이 통신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 3. 펠 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부 과정).

펠 그랜트(Pell Grant)는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값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1년 가을학기에 50여명의 학부생이 이 혜택으로 학비 걱정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4. 학생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부, 대학원 과정).

학생 용자는 학부, 대학원 모든 과정에 가능하며, 졸업 후 낮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가을학기에 10여명의 재학생이 장기 학생용자 혜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5. 상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상담 훈련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한 상담 사역자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가정사역 상담자, 목회 상담자로 교회와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6. 타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바이올리 대학교, 탈봇신대원, 플러신대원, 아주사 신대원, 클레어몬트 신대원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졸업자가 UCLA 합창지휘 박사과정, Peabody Institute 연주자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 7. 학위 과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학과 (D.Min / 유학생 1-20 발급)</li> </ul> </li> <li>▶ 석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학과 (M.Div)</li> <li>● 신학과 (M.A)</li> <li>● 음악과 (M.A.M)</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서신학과 (B.A.B.S)</li> <li>● 기독교 상담학과 (B.A.C.C)</li> <li>● 음악과 (B.A.M)</li> </ul> </li> <li>▶ 단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상담 사역자 / 유아교육 교사 / 유아교육 원장 과정</li> </ul> </li> </ul> |
|--|---|

● 원서 접수마감: 2011년 8월 12일(금) ●